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연기

교수회 4명 입후보 ... 오는 28일 총장후보 선거 시행

제16대 총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총장후보자 추천 위원회(이하 총추위)'가 다음 달에 구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지난 22일까지 각 해당 기구에서 교원·직원·대한불교조계종·동문·학부학생·대학원학생의 대표위원을 선정해 법인에 제출하고, 사회인사 대표위원 3인의 경우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선정할 예정이었다.

지난 20일 본관에서 열린 제66차 총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는 성원미달로 당초 예정했던 종단측 대표위원 4인의 선정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에 열릴 총립학교관리위원회로 연기됐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영배스님은 "현재 교수회 및 직원노조 측에서 직선제로 선거를 진행중이지만, 임의단체의 의사표현으로 보고 그냥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직원 대표위원 선정은 난항

을 겪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11개 단과대학 중 9개 단과대학이 공문을 제출했고, 제출하지 않은 공과대학과 정보산업대학의 경우 일정이 연기돼 오늘 선정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공문을 제출한 9개 단과대학 중에서도 7개 대학은 대표위원을 한 사람씩 추천했으나 두 곳은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이종욱(정보관리학) 교수회장은 지난 13일 법인사무처에서 교무처장及各 단과대학장에 보낸 공문에서 "총추위 규정 제5조와 학칙 제14장에 따라 이번 총추위 교원 대표위원 추천은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제한없이' 학장이 주재한 회의의 통틀 소속 단과대학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면 소정 요건이 충족된다"는 내용에 대해 "전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규칙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직원 대표위원 7명은 직원노조통합(위

원장=최기석)에서 "총추위에 반대하는 총회 결과에 따라 양 캠퍼스 모두 대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부 및 대학원 학생대표위원은 △학부(서울캠)=정성진(경영4) 총학생회장, 우영진(기계공4) 부총학생회장 △대학원=김동우 총학생회장(정치학 석사4학기)으로 공문을 제출한 상태이다. 동문 대표위원으로는 총동창회에서 송석환(농경 68졸) 수석부회장, 서영준(법학 68졸) 부회장, 전영화(경영 69졸) 부회장을 선정했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 19일 총장 후보 선거 입후보자 접수를 마감하고 기호1번 이황우(경찰행정학), 기호2번 한보광(선학), 기호3번 염준근(통계학), 기호4번 정용길(정치외교학) 순으로 기호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총장예비후보로 등록했던 4명으로, 그 이후로 정책자료 등을 공개해왔다.

오는 2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차투표를, 3시부터 6시까지 결선투표를 상륙원 앞에서 진행해 1, 2위 득표자를 후보로 확정, 재단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에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상 부여된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총추위 추진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지난 5월 30일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밖에서 시위 중인 교수회·직원노조의 모습

동북공정 항의 서한 전달

홍기삼 총장 중국 사회과학원 방문

우리학교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이 지난 19일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변경사지(邊疆史地)연구센터의 모체인 사회과학원 천쿠이위안 원장에게 '한국과 중국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사회과학원은 동북공정을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홍기삼 총장은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협정 협의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변경사지연구센터가 사회과학원 산하 기관임을 감안해 교류 협의를 중단하고 사회과학원에서 예정하고 있던 특강을 전면 취소했다.

홍 총장은 "중국의 고대사 왜곡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본격적인 역사전쟁에 돌입했다"며 "이것은 앞으로 50년, 500년이 걸릴지 모르는 가나긴 한·중 역사전쟁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의서한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은퇴를 앞둔 늙은 학자의 절규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홍기삼 총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세계 주요 대학들이 중국의 향후 중요성을 깨닫고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개교 60주년을 맞은 중국 길림대의와 학술교류 협정조인식을 가졌다. 또한 18일 홍 총장은 중국 국가중국어의 국가급 포럼인 '은안논단'에서 각국의 종교지도자와 저명한사들을 대상으로 '한·중·일 삼국의 화(和)사상 비교'에 대해 강연을 해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임기동안 고대사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사교육 강화, 교수진 확충 등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교내·외 각 실무자들과의 논의 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항의서한 전문 3면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성불하십시오" ... 가을학기 개강법회가 지난 19일 정각원에서 열렸다. 봉선사 조실 월운 큰 스님이 법사로 참여해 '동국인으로서는 일상생활지세의 성불'에 대해 설법하였다.

정태섭교수 우수학술도서 선정

정태섭(역사교육학) 교수가 김용천 씨와 함께 옮긴 미조구치 유조의 '중국의 공과사'가 2006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국내 초판 간행된 기초학술도서 및 동서양 고전 중 우수국역서를 선정해 대학 등 공공 도서관에 한 권당 1천~2천만 원 내외로 보급하는 지원을 한다.

이경규 동문 27일 강연

이경규(연극영화) 동문의 강연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38대 총학생회 공약 실현사업인 '정상에 선 사람을 만나다'의 일환이다. 주회는 총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로, 이번 강연에 참여하는 선착순 500명에게는 USB 휴대폰 충전기를 지급한다.

알림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0월 16일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수상자 발표

우리신문사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들어보고자 기획한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감동상 = 양지웅(사법대 국4), 상금 20만원
△자랑상 = 최현각(불교대 선학과 교수), 상금 10만원
△도전상 = 이대성(동문, 대신고교 교사), 상금 10만원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 ○○명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 9월 28일(목) 오후 5시까지
전형일시 : 9월 28일(목) 오후 6시
원서교부 :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문의 :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2260-3491~2
혜택 : 장학금·활동비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개설 어학특강 무료 수강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제44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상 : 각 분야별 정월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제21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상 :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출 : 10월 23일(월)~11월 10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 (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입상발표 : 2006년 11월 27일자 동대신문(예정)
☆ 문의 : 02) 2260-3491~2

금주의 동국인

바다 건너 동약을 찾아온 이시무라 유수케 군



캠퍼스를 활보하는 교환학생들에게서 대학가의 국제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 중 한창 한국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는 일본인 교환학생 이시무라 유수케(불교 4) 군을 만났다.

오래 전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고향 오사카에 제일 교포와 한국인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예전에 3년동안 한국어를 배웠는데, 발음이 무척 어려워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며 지금은 꽤 능숙해진 한국어로 토박이처럼 말한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인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수케 군 또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어학연수로는 현지 대학생들의 생활을 접해 보기가 힘들었는데,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이곳의 대학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또한 친구들과의 교류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릴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의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그는 '사람사이의 친밀도'에서 문화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거

나,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선풍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또한 지난 반년간의 학교 생활에 대해 그는 "동국대는 편한 친구같은 학교"라며 웃으며 답했다. 그는 "한국 친구들은 무척 솔직하다"며 "자기 수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문화와 달라 놀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마음이 쓸쓸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그는 내년 2월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한 뒤,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 인사를 준비할 계획인데 "그곳에서 선수들이 해외의 여러 나라로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특별한 인연으로 품고 돌아가겠다는 그가 동국대에서의 배움을 밀바탕으로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손주희 기자
sonhee1347@dongguk.edu

복수전공 포기 신청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는 복수전공을 신청하고도 이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복수전공을 취득할 수 없는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포기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더

우리학교 체육부 점검(下) 운동시설·기숙시설·학업 3박자 갖춘 체육부 돼야

대학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을 위한 전용구장과 편안한 기숙시설, 무엇보다 '학생선수'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과의 병행이다. 체육부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타 대학의 상황과 우리학교 체육부를 비교해 보았다.

▲운동시설 건국대는 이전에 선수들을 위한 전용축구장과 야구장이 있고 성균관대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모두 전용구장이 마련돼 있다. 우리학교 체육부는 축구, 야구, 농구, 골프부가 모두 전용구장이 따로 없어 연습구장을 단기간 임대하거나 친선게임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기숙시설 단체종목의 경우 우리학교 외에 타 대학 선수들도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중앙대 선수들은 2인 1실을 사용하며, 방에는 개인책상과 TV가 갖춰져 있다. 중앙대를 제외한 많은 대학이 운동선수들의 체격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학교는 지난학기에 운동선수들의 기숙시설인 금강관 리모델링 구조개선을 통해 11개실을 14개로 늘려 현재 4~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우리학교 농구부 유병재(체교 4) 주장은 "고된 훈련 후 휴식을 취해야 몸이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한 방에 4~5명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말했다.

▲학업 선수들은 시험, 훈련시간 등이 수업시간과 겹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경희대는 오전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3시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건국대는 오후에 교수들이 직



출처 = 성균관대 체육실 홈페이지

접 운동선수들을 위해 보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와 한양대, 고려대 등은 방학을 이용해 한문, 영어 등의 특강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체육실 관계자는 "선수들이 프로로 갈 수 있도록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환경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학교는 방학을 이용해 선수들을 위한 집중 전공 강의를 마련하고 있다.

매년 연고전이 열리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제외하면 대학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예년과 비교해 저조하다. 이는 각 대학 체육부의 우수실적과 관계없이 학과 공부와 취업준비로 바쁜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 이유이다. 이에 우리학교 체육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학생 수는 매우 적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미혜 기자
limisonaral@dongguk.edu

동대신문 제1431호(9월 18일자) 1면 체육부 점검 기사 중 농구부 창단년도는 1945년, 골프부 창단년도는 2003년으로 정정합니다.

가을, 동악의 대향연 속으로!

오늘부터 4일간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

동국인의 축제 '2006년 백상 대제전 BIG3'가 열린다. 이는 각각의 행사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일간 계속된다.

▲백상음원단(회장=유재범·기계공2)은 백상제전과 '백상 樂콘서트'를 진행한다.

백상제전은 오늘 만해광장에서 농구, 축구, 줄다리기, 줄넘기, 짝꿍 경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경기를 치른 뒤 1, 2, 3위에 상품이 주어지고 종합우승상품인 컴퓨터와 50만원 상당의 생협이용권은 각 경기의 점수를 단과대 별로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에 제공한다.

26일 7시부터는 대운동장 특별무대에서 제18회 '백상 樂콘서트'가 진행된다.

개그맨 김재우의 진행으로 백상음원단과 A'CELL IN A STORY, 동대부고 밴드, OB의 공연과 나뉠라패밀리, 락블리쉬의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콘서트는 락공연 뿐만 아니라 팝밴드와 함께 O.D.C., AJAX, SSID의 댄스공연이 어우러져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된다.

▲동아리 연합회(회장=변제위·신방4, 이하 동연)에서는 27일 제22회 동아리 연합제전 'THE'를 준비 중이다.

'더 함께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기자'라는 모토로 정오부터 팔정도 주변에서 △도서관바자회 △립보·팔씨름·밀어내기·디버디비딩·바둑대회 등 각종게임 △동아리 사진전 △자유발언대 △MASIC, 무예누리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야간공연은 6시 30분부터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연예인 박경림의 진행으로 손짓사랑회, 아리랑, O.D.C. 댄스그룹, AJAX, 피어리스턴, SSID, MAX(숙명여대 댄스동아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이승

환의 축하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변제위 동연회장은 "동아리활동 홍보와 더불어 공연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학생들이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학생회(회장=정성진·경영4, 이하 총학)는 28일 6시 대운동장에서 DUBS와 함께 제2회 북막가 요제를 진행한다.

본선진출자는 1차 예선전에 참가한 124팀 중 37팀을 선정하여 2차 예선을 거쳐 13팀을 선발했다.

연예인 재학생인 이승기, 전혜빈의 사회로 본선진출팀 외에도 작년 대상수상자 김분금(사학4)양, 직원대표 정보관리실 최준혁 직원, 초대대수 임정희, SG워너비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수상팀에게는 장학금과 트로피가 수여되고 인기상은 심사위원과 네티즌 인기상으로 나누어 장학금이 지급된다. 네티즌 인기상은 오

는 27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선 2차 동영상과 보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학생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얻은 팀이 선정된다. 투표에 참가한 학생 중 열명을 추첨해 100주년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축제 기간에 총학에서는 시사회와 미술사 최현우의 강연을 주최한다.

사이더스 FNH 대표 차승재 영상대학원 교수와의 협력으로 준비된 '무도리'와 '타짜' 시사회는 각각 27일과 28일 밤 9시에 분관 중앙관에서 진행된다. 총학 홈페이지에서 지난 22일 신청을 받아 마감까지 700명 정원에 약 1,500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26일 4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미술사 최현우 씨가 '미술같은 만남'을 주제로 미술공연과 함께 강연할 예정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한전무대

무대체질

○...우리학교 학생들은 주목받기를 좋아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수업에 지각한 학생들이 강의실 앞문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훑느라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많아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수업 전에 미리 들어와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늦은 경우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앞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공지불가

○...하림관 화장실에는 침단비밀이 있다는데.

알아본 즉, 이번 환경개선공사로 변한 화장실의 세면기 개수구가 최신시설로 변경되어 마개를 눌러야 물이 빠지는데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 물이 받아진 상태로 있다고.

최신시설로 바뀐 화장실은 좋지만 사용법을 몰라 사용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면 사용방법등을 공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화장실에서 숨은 장치 찾았(!)"

컴퓨터 전시실

○...우리학교 컴퓨터는 가동력이 부족하다고.

무슨 말이고 하니, 하루에 약 한 건씩 포맷을 해야 하는 컴퓨터가 생기고, 간단한 연결문제 미확인으로 꺼져 있는 컴퓨터가 많다고.

학생들은 학교 기물을 소중히 다루고, 무조건 고장이 났다고 문 의만 하기보다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을 어떨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우리학교 컴퓨터는 항상 대기중(!)"

오밀조밀

○...무용실은 초밀도라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댄스관련 교양 강좌가 이뤄지는 무용실의 거울이 학생들 수에 비해 벽면에 적게 달려 있어 모든 학생들의 동작이 거울에 비치지 않아 동작 교정이 힘들다고.

학생들의 동작 교정이 거울을 보고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벽면에 거울을 더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우리학교 무용실은 다이어트중(!)"

동국로얄대학 단기 임상연수 학생 인터뷰

“양·한 협진체제 인상적”



우리학교와 동국로얄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동국로얄대학 단기 임상연수'가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에서 있었다. 동국로얄대학은 LA에 있는 우리학교의 자매학교다.

이번 연수의 취지는 상호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우호 정진, 동국로얄대학 및 교수에 대한 한의학 학술연구 교육 및 학습동기부여, 동국로얄대학 홍보 효과 증진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침구과 임상교육, 한방병동 임상견학, 한방재활의학과 임상견학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McCullough Mary, Wang Shu Vi, 문성두 학생을 만나보았다.

- 어떤 기준으로 선발 되어 이번 연수에 참여한 것인지. = 동국로얄대학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반에서 한 명씩 성적, 봉사기도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선정되어 참여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두 번째로, 지난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을 통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상으로 프로그램이 알차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동국로얄대를 평가한다면. = 미국의 어떤 학교와 비교해

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현지 사람들도 점차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학교의 입지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석·박사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모여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을 방문한 소감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은 시설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의료진 또한 우수한 실력자들이다. 양·한 협진체제 속에 양방과 한방 의료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침구, 한방재활의학과에서 비만에 관련된 여러 기구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통해 어떻게 처방이 내려지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는 만큼, 반대로 한의과대학 학생이나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 수련의가 미국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이 되었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28일 한가위 한마당

오는 28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생활학생위원회(위원장=정형주·통계4)가 주최하는 한가위 한마당이 열린다.

11시부터 5시간 정도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굴렁쇠 등 전통민속 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며, 송편과 식혜, 수정과 등 전통 음식 시식회를 열어 동국인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오후 2시에는 '중추절 희망기원 동국대 깃대 물기' 행사도 갖는다.

참가자는 희망하는 깃대를 제작 후 풍물 동아리와 함께 교내를 도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우수작엔 문화상품권, 복사카드, 식권, 로즈버드 쿠폰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된다.

또한 이날 한가위 특별 상품인 정과 등 전통 음식 시식회를 열어 동국인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총무원장 장학 40명 수혜

지난 21일 조계종 총무원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제3회 총무원장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총무원장의 명의로 수여된 이번 장학은 우리학교 조계종 신도이며 가정환경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선정했다.

서울 캠퍼스 25명, 경주 캠퍼스 15명 총 40명이 각각 200만원을 수혜받았다.

선발자 명단은 송인섭(경영4), 김중호(경영3), 장보미(불교3), 이시운(선학3), 손동필(토목공4), 이성근(인도철학3), 박보현(불교3), 이승은(불교4), 김연수(불교4), 이연희(선학3), 정은경(선학4), 최보원(불교4), 류근정(불교4), 화창득(컴공3), 김민정(행정4), 이초룡(인도철학3), 이두해(선학3), 이승찬(체교4), 홍대용(인도철학3), 김지선(역교4), 이지연(사회4), 노봉환(인도철학3), 이효진(불교3), 김두원(전자공3), 이갑숙(산림자원3)이다.

오늘부터 2학기 수강신청 취소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강좌 취소가 진행된다.

수강과목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소신청서는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다른 교과목에 대한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강과목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

가 불가능하다. 단, 4학년의 경우 제한이 3학점 미만이다.

제9회 송편배우기 사랑나누기 행사 열려

오는 27일(수) 계산관 앞마당에서 송편 빚기 행사가 열렸다.

여학생실(실장=손재현·체육교육학) 주최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학생들이 선재스님과 함께 송편을 빚고, 독거노인들에게 송편 도시락을 전달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송편을 출품하면 잘 빚은 송편을 선정해 그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며,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오는 28일 개소식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이 중구청장과 우리학교 총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28일 3시에 학림관 3층 J312에서 열린다.

이는 작년 1월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1일 우리학교가 중구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3년 동안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공동체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목표로 어린이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어린이 건강식 등의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으로 가정문제의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될 예정이며 중구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 참 편리하네" ... 지난 18일 상록원 1층에 식권자판기가 가동됐다. 학생들이 붐비는 시간에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식권자판기는 앞으로 점차 개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양성평등 서포터즈 모집 다음달 13일까지

여학생실(실장=손재현·체육교육학)에서 양성평등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양성평등서포터즈는 교내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며, 서포터즈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설문조사, 캠페인, 교육·문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서포터즈는 남·여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여학생실로 하면 된다.

동악로 교(校)학(學)괴리

지난 21일 사회과학부 학생을 위한 전공 설명회가 열렸다. 당초 330여 명을 대상으로 준비했지만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3시에 예정됐던 설명회는 30분 지연된 후 시작됐다.

설명회는 정치외교, 경제, 북한, 신문방송, 사회, 행정 등 사회과학대학 6개 각 학과 주임교수

의 전공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사회과학부 행정지원실장 최응렬(경찰행정학) 교수는 "매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전공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와 받아들이는 학생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듯 했다. 설명회는 한 학과 당 1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학과 소개와 전공 안내, 교수님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교수님들은 PPT를 사용하면서 각 전공에 대해 설명했지만 설명회라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전공 설명이 되지 않았다.

설명회에 온 김형훈(사과대1)군은 "전공에 대한 설명은 지도교수님과 상담으로 듣는 것이 더 나을텐데, 설명회는 다소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심혜인(사과대1) 양은 "기본적인 학부의 공통을 배운 뒤, 스스로에게 맞는 전공을 찾는 학부제인데 이에 대한 학교의 지도보다는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노

력을 중요시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공 선택을 스스로 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학생들이 전공 설명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꼭 맞는 전공을 찾아주기 위해 설명회까지 개최한 학교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부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학생들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을 듯하다.

학기 초 학생들을 맡은 지도교수는 학생들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학생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권해주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전공 설명회가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손주희 기자 sonhee1347@dongguk.edu

내 후배 사랑 300억조성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월 3만원이면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자는 모교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부참여방법

- ▶ 월납, 분할납부 월 3만원×100회(8년) = 3백만원 월 5만원× 60회(5년) = 3백만원
- ▶ 기타 금액, 일시납부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신 동문께는.....

- ▶ 그 고귀한 뜻이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 ▶ 아울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료 둘러싼 대학과 학부모의 갈등

전형료 수준과 사용처 공개에 대한 양측 절충 필요

최근 대입 전형료를 둘러싸고 대학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정부청사 앞에서 대입 전형료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각 대학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는 고려대가 수시 2학기 일반 전형료로 26억 3천만원(경쟁률 34대 1)의 '대박'을 터뜨린 데서 시작된 문제다. 그러나 학사모는 "비단 고려대 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대학이 갖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한철 '입시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며 "지난 5년 사이 전형료가 두 배 이상 뛰었다. 한해 60여 만 명의 입시생들이 수차례 전형기회를 갖는 것을 감안하면 대입 전형료로 자그마치 60조 원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의 전형료 장사는 학력 중심이 낡은 우리 사회의

स्प출한 단면이자 학부모들의 교육열 과잉을 악용한 것"이라며 "입시장사의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에게 전형료의 일부라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서울시 주요대학의 경우, 수시모집 전형료는 일반전형으로 볼 때 7~8만원 선이다. 최근 수시 2학기 모집전형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모두 7만원, 중앙대 등은 8만원을 받고 있었다.

우리학교는 작년까지 6만원으로 책정됐다가 지난 수시 1학기 전형부터 1만원이 인상돼 7만원을 받아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학처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이번에 높게 책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준이 다른 대학에 비해 저렴했던 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단계 전형을 치르는 경우, 우리 학교는 1단계 불합격자에게 2만원을 환불해 주고 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서

류심사, 논술평가 등 1단계 전형의 종류에 따라 연세대는 1만 5천원을, 중앙대는 5만원을 환불해 주고 있다.

대입 전형료로 얻는 수입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주로 전형을 진행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입시 홍보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러 대학들이 대입 전형료로 '입시장사'를 하고 있다"는 학사모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학생 1인당 대입 전형료에 100여만 원의 돈을 쓰게 돼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시는 수험생 본인의 소신에 달려있다"며 "특히 수시 전형의 경우 입시에 대한 집중을 위해서라도 많아야 세네 곳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입 전형료 문제는 앞으로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대학과 학부모들은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서민 경제를 고려한 전형료 수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중국사회과학원 동북공정 항의서한 전문

한·중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일부 학자들이 양국의 상호 존중과 평화 전통을 깨는 활동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그들이 동아시아 고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논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사태는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오늘의 한국인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중국의 학술 기구들과 학문 공동체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종전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나 그러한 한국 고대사 왜곡 작업이 계속되는 한 사회과학원과의 공동의 학술적 노력이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어느 나라에도 결코 이로울 수 없는 엄청난 역사 변조 작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현재보다 오히려 미래이다.

한국 민족의 원류인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국가 구성과 영토의 문제는 오늘날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일

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해 느닷없이 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 천년 동안 전해진 중국과 한국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다.

만약 동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중국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오늘날까지 자신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무지한 채 수 천년을 살아왔다는 이상한 현실이 성립하는 셈이다. 중국 선대의 역사가들이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모두 부정되는 상황은 엄연히 중국의 자기모순이다.

양식과 예의 그리고 염치를 존중하는 중국의 문화 전통으로 볼 때 이러한 역사 왜곡은 중국 자신의 명예에도 결코 이롭지 않은 일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면 어떻게 지방정권은 705년간 존속되고, 중앙정권은 50년마다 교체되었던 말인가.

역사의 사실은 아무리 변조하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비학문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허구는 우월적 힘을 가지고 내세운다고 해서 결코 사실

로 둔갑하지도 않는다. 역사가는 자기 학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을 지어낼 수는 없다. 그것이 사학의 철칙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선대 역사가들은 진실된 기록을 남겼다. 그것은 동아시아 사학의 영원한 귀감이며 중국문화의 빛나는 전통이다.

우리는 동북공정 담당 학자들이 역사 변조 행위를 하루 빨리 중단하기를 바란다. 상대방의 역사적 과거를 사실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힘써 추구하고 있는 한중간 이해와 협력 관계도 흔들리기 쉽다.

우리는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하루 빨리 실사구시의 정신을 되찾고 동아시아 제민족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는 진실한 학문의 길로 나서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사설

대학발전을 위한 자발적 기부

지난 18일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입혜구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4년제 대학 기부금 현황'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우리학교의 지난 3년간 기부금은 386억원으로 4년제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했다. 2005년 34억원을 모금해 33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커다란 발전이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대학에 비해 부족하다.

대학에 대한 투자가 대학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학 기부금 모금 또한 대학에 대한 투자의 한 방안이고 현 상황에서는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학에 외부적 지원을 해주는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 신문에서도 이전부터 우리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늘어나야 함을 여러 차례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 없이 인색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정부의 투자와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모금의 첫 단계는 바로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일이다. 우리학교도 학교와 관련된 구성원으로부터 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외협력처에서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캠페인'을 통해 8월말까지 4억 5천만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교직원과 동문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자발적 기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대학 측의 실천도 뒤따라야 한다. 대학이 투명경영을 통해 내·외부적으로 기부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자발적인 기부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자발적인 기부가 늘어 대학에 투자가 확보되면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다. 등록금, 정부 및 기업의 지원으로 대학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현 대학사회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해 볼 때 무모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기부 환경 조성을 통해 대학을 등록금 논쟁이 사라진 '학문탐구와 인재양성의 실현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을 시도할 때이다.

동국만명

이주현 ni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편집장 강지혜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7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특별전형)

- 모집과정 및 학과: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 모집인원: 각 학과별 약간 명
- 지원자격: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석·박사과정 모두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
원서교부	2006. 9. 4(일) ~ 10. 13(금)	가. 장소: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함.(www.dongguk.edu/gs) 서울캠퍼스: 학술관 1층 대학원 행정지원실 경주캠퍼스: 신정관 1층 사회과학대학원 행정지원실
원서접수	1. 인터넷접수: 2006. 9. 25(일) ~ 10. 11(수) 17:00까지 (www.wwww.com-동국대학교 대학원) 2. 방문접수: 2006. 10. 9(월) ~ 10. 13(금) 17:00까지	
전형일시 및 장소	2006. 10. 28(목) ~ 10. 31(일)	1. 10:00시부터(면접은 학과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2. 시험전일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06. 11. 10(금) 14:00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등록기간	2006. 11. 13(일) ~ 11. 17(목)	신한, 제일 전국 각 지점

- 장학:
 -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의학계열제외)
 - 조교장학(연구, 교육 및 행정조교), 종강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가 있음
 - 화려, 물리, 수역, 생물학과 재학생에게 박 교관호수 후배사랑 장학금 지급
 - 전자공, 건축공, 화학공학과 학생에게 연구비 지급
 - 본교 학사,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 입학생은 입학료 면제(졸업 후 3년 이내 진학자)
 - 국문, 반도체과학과 입학생에게 특성과 장학금 지급
 - BK21 관련학과(불교,반도체과학) 장학금 지급
 - 과학기술 연구장학(물리, 반도체과학, 전자공학과)
 - 해위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동국대학교 대학원
www.dongguk.edu/gs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2006학년도 대학원 연구논집(36집) 발간 안내

- 목적: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증진과 대학원의 학술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논집 원고 모집분야

모집분야	해당 전공
인문사회	불교, 철(인도철), 사, 미술사, 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복원, 경제(농업경제), 경영(정보관리)학, 무역, 회계, 지리, 미술, 연극영화 등
자연과학	수, 물리, 화, 생물, 통계, 반도체과학, 공학, 농학, 임학, 조경학, 가정학, 체육학, 한의학, 의학 등

- 원고제출:
 - 제출논문 기간 및 장소: 2006. 9. 13(수)~2006. 10. 13(금), 대학원 행정지원실 나. 제출자격: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다. 제출서류: 신청서1부(소정 양식), 원고 3부, 디스켓 1부 라. 원고작성요령: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원고심사:
 - 심사기간: 2006년 10월 말 나. 심사위원: 원고 1편 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며, 원고 제출자의 소속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 심사방법: 제출원고에 대한 심사는 가·부로서 하며, 심사위원 2인 중 1인이 「부」관정을 할 경우 해당원고는 연구논집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대 학 원

제8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시상(東院學術賞) 시행안내

- 목적: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있는 학문풍토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응모계열:
 - 인문과학계열(예, 체능계 포함)
 - 사회과학계열
 - 자연과학계열(의학적 포함)
 - 공학계열
- 응모요령:
 - 응모자격: 석사과정: 본 대학원 재·휴학생 및 수료생 (수료 후 경과학기 5학기 이내인 자) 박사과정: 본 대학원 재·휴학생 및 수료생 (수료 후 경과학기 10학기 이내이며, 투고 당해 학기 연구등록을 필한 자)
 - 응모기간: 2006. 9. 13(수) ~ 10. 13(금)
 - 제출논문:
 -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석·박사 과정 입학 후 교내의 공인된 학회논문집(학술지)을 통해 발표된 것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논문이어야 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석사학위과정 제출논문의 연구업적누계는 70%이상이어야 하며, 박사학위과정 제출논문의 연구업적누계는 100%이상이어야 한다.
 - 연구논문의 실적적인 비율 및 제출 자격
- 시상내역 및 상금 (총 20편, 상금총액: ₩20,000,000)

구분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상금
최우수상	계열별 각 1명				₩2,000,000
우수상	계열별 박사과정 각1명, 석사과정 각1명				₩1,000,000
장려상	계열별 박사과정 각1명, 석사과정 각1명				₩500,000
합계					

- 시상내역 및 상금 (총 20편, 상금총액: ₩20,000,000)
- 최우수상: 금년도 동원학술상에서는 1차 심사 후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신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투고료(100,000.-)를 지급토록 함.
- 심사결과 우수논문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논문 출판: 동원학술상을 수상한 논문은 연구논집에 게재한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동국대학교
 - 주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 대학원 총학생회

대 학 원

취업준비는 목표설정부터

진로 결정 후 그에 맞는 능력 키우는 데 주력해야

취업준비생인 김승욱(영양4) 군은 다가오는 추석이 두렵기만 하다. 추석 때 모인 친척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직 김 군은 단순히 토의 준비만 한 채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취업준비생인 안치원(생화학4) 군은 역시 "취업을 위해 토의와, 취직 시 시간점이 있는 한자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정한 회사나 직종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비탄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토의', '자격증 취득' 등 '남들이 하니까 나도...'라는 식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준비는 취직에 있어서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희망하는 직종과 직무를 정하지 못한 채 하는 취업 준비는 자칫 시간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 직종과 회사를 미리 결정한다면 그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그곳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입사 희망 기업의 취업설명회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특강 등을 미리

참여해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올해 2월 대한생명에 취직한 원대봉(국제통상4) 군은 "처음부터 '금융'이라는 목표를 세워 배경지식을 쌓고 준비해 면접 때 크게 도움이 되었다"며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많은 회사에서 각 기업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 독특한 채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그 회사가 원하는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것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원채용에 관해 한국전력 인사팀 담당자는 "10개의 자격증보다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1개의 자격증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목표를 세운 후에도 그에 맞는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예로 인턴십을 신청하더라도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된 곳에서 할 수 있어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소개서 역시 희망직종과 관련된 경험과 능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 시 포함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오리온 HR팀 채용 담당자는 "토의점수와 자격증보다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많이 보고 있으며, 지원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 위주로 채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더 이상 '신입생 시절부터 취업을 걱정한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확

실한 진로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 후 남들의 기준에 맞는 준비가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창업의 꿈 이뤄가는 '시니어컴' 대표 안도량(전기공 97졸) 동문을 만나

“창업은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지난해 마스크에서 화두가 된 '4억 소녀', 그리고 여기저기서 광고되고 있는 '무자본 무점포' 창업. 이런 일들을 접한 우리는 이따금 창업대학의 꿈에

젖근 한다. '시니어컴'이라는 회사를 차려 인지도를 늘려 가고 있는 안도량(전기공 97졸) 동문, 그에게서 창업의 현실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하듯 나도 역시 3·4학년 때 창업보다 취업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석사 과정을 밟아 나갈 때 프로젝트를 요청받아 무선 경매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물건을 회사에서는 제작비의 1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판하는 모습을 보고 창업을 마음먹게 되었다.

- 창업 준비과정과 제품개발 성과는.
= 나도 사업실패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취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창업 준비를 했다. 이는 경력공

백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업의 첫 시작은 작은 규모였다. 사업을 크게 벌일 자금도 없었던 터라 대규모로 시작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벌리기도는 회사 규모를 조금씩 키우는 경영방식을 세워 운영했다.

내가 처음 만든 제품은 기존의 제품을 변형시킨 것이다. 기존제품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100만 원대의 비싼 가격이라 '실용적으로 만들자'는 것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기능만 있는 12만 원대의 값싼 제품을 만들었다. 그 후 RF카드를 이용한 '근퇴관리시스템' 하드웨어를 만들기도 했다.

-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창업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철저한 시장조사와 제품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윤은 둘째 치고 매출이 없으면 회사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 아이템에 있어서도 기존의 것을 모방하다가가는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이다.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템을 변형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술력'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면접을 좌우하는 스타일과 표현법

면접에서 면접대상자를 보고 첫인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시간 단 3초. 3초 동안 남성은 외모와 행동으로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초 안에 면접관을 사로잡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취업정보 사이트 '인쿠르트'의 면접상담가 유경미 씨에게 들어보았다.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보이는 머리모양은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여성의 경우 다양한 머리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뉴스 앵커의 머리모양을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화려하게 염색한 머리카락이나 퍼머를 한 머리는 벤처기업 또는 개인회사 등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외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무스나 스프레이 등을 지나치게 바르는 것 또한 부자연스러워 보기 좋지 않다.

의상과 메이크업
남성과 여성 모두 기본적으로 머리모양과 잘 어울리는 정장을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다소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검정색 정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정장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흰색 와이셔츠가 가장 무난하며, 재킷 속에 조끼를 입으면 매우 단정해 보여 성실한 모범생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양말은 바지 색과 같거나 짙은 색이면 좋으며, 구두는 끈이 없는 스타일이 좋다.

여성의 경우에는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도 좋다. 정장 바지를 입을 시에는 일자바지를 택하며 여성의 경우 특히 유행을 타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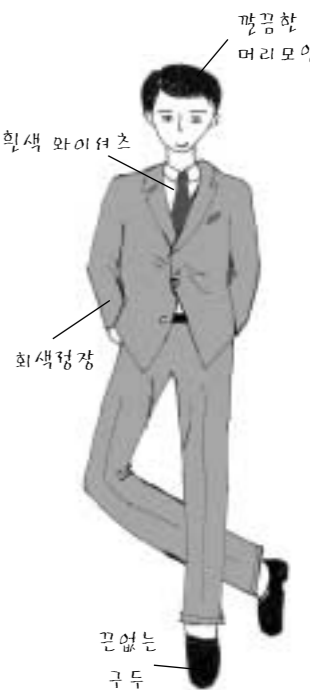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는다면 준비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장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짙은 색조화장은 표정을 잘 나타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화장을 하지 않기에 화장을 안 하고 가는 것이 좋은 인상을 주며,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열게 하는 편이 좋다.

표정과 말투
아무리 맵시 나게 옷을 잘 차려 입었다 하더라도 어깨가 구부정하면 소극적으로 보여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

입가에 띠 미소는 면접관에게 자신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좋은 수단이다. 또한 말을 할 때는 면접관의 미간을 쳐다보며, 면접관이 여럿이라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보며 말한다. 대답할 때는 질문이 끝난 후 2~3초 정도 생각을 한 후 대답하는 것이 신중하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어느 정도의 손동작은 자연스러워 보이나, 지나친 몸짓과 제스처는 여성의 경우 애교를 띠는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2006년 2학기 집단상담안내

'새로운 시작'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늘 시작은 늦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의 탐색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한 집단 구성원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만남의 장입니다.

집단명	참가대상	일시
대인관계 향상집단 (초급과정 1)	내면세계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색해보고 싶은 동국인	매주 수 4-6시
자아초월 집단 (심화과정 2)	내적갈등과 자아분열의 근본원인을 이해하고, 초월명상과 각성요법으로 자아 통합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동국인	매주 목 6-8시 (집단상담 초급과정 이수자)

- ▶ 리더: 박범석 (에너지그룹 전문가)
- ▶ 기간 및 횟수 : 각 집단별 8회기씩 진행
9월 27일 ~ 11월 23일까지, 매주 수(4-6시) · 목(6-8시)
- ▶ 접수 문의 및 장소 : 구내전화 : 3931
9월 27일 수요일까지 선착순 10명 접수(각 집단별) 본관 2층, 학생상담센터(집단상담실)
- ▶ 초급과정, 심화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집단수료증 발급

학생 상담 센터

건학 백주년기념 생태환경 논문공모전

- 공모 대상 : 동국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논문접수 및 마감일 : 10월 16일(월) ~ 10월 20일(금)
- 당선작 발표 : 11월 3일(금)(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당선작 공개발표회 : 11월 10일(금) 오후 2:00 ~ 5: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 오전 10:00 ~ 12:00, 오후 2:00 ~ 4:00)
 -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 논문에 주소와 연락처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일체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논문 내용 : 불교생태사상, 환경기후 및 공학, 자연환경, 환경정책 등 생태·환경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논문형식으로 정리하여 투고
- 시상내역
 - 대상(총장상) 1팀: 200만원
 - 대학원생: 최우수상 1팀(100만원), 우수상 1팀(50만원)
 - 대학생: 최우수상 1팀(100만원), 우수상 1팀(50만원)
- 문의 : 전화: 02) 2260-8648, FAX: 02) 2260-8649
홈페이지: www.eco-forum.or.kr
이메일: ecoforum@dongguk.ac.kr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계산관 104호 생태환경연구센터

생태 환경 연구 센터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종무행정론
조기홍 지음
2006 / 신국판/610면 / 27,000원
ISBN 89-7801-179-9 93350

이 책은 종무행정이 학문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이론과 더불어 현장에서 실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응화하고 있다. 또한 불교교단의 종무행정에 대한 전문서로 종무행정을 조직, 재무, 인사로 분류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종무행정의 조직론에서는 종무행정 조직이론과 종무행정조직의 원리와 특성을 설명한 후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반조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도조직을 포함하고 있어 유용함을 더해준다.

불교교단 인사행정에서는 출가종무원, 재가종무원, 그리고 신도노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종단예산과 사찰 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원칙, 예산종류, 그리고 예산과정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는 종교조직으로서 불교교단의 존립을 위해 필수요소인 전법교화 즉 포교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포교의 의미에서 포교방법론 그리고 법외관리까지도 포함하여 사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선 사찰의 스님과 종무원은 물론 학제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하리라 본다.



2. 高麗大藏經의 研究
張愛順(계환스님), 鄭承福, 貝英幸, 宋永知海 지음
514쪽 / 정가 16000원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이 책은, 동국대학교와 일본 불교대학(Bukkyo Univ.)의 중견 학자들이 참여하여 고려대장경을 주제로 3년에 걸쳐 추진해 온 한일 공동연구의 결실이다. 이 책은 4편의 논문을 각각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수록하여, 양국 공동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 책에서 장애순(계환스님)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편찬 배경, 정승서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편제 중 불전명의 정식화 양상」, 카이 히데유키(貝英幸) 교수는 「고려판 대장경과 중세의 일본」, 마쓰나가 치카이(宋永知海) 교수는 「고려판과 황백파의 대장경 대교」를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고려대장경을 연구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예는 거의 없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고려대장경 자체에 대한 연구와 한일 불교교류사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일 불교학계에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공동연구 풍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각 기업의 채용철이 다가오면서 취업전문기관과 대학에서는 앞다투어 취업박람회 열고 있다. 이번호 주제기획에서는 취업박람회의 현장과 9월 달 열렸던 대학가 취업박람회를 살펴보고 최근 취업박람회 열풍과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대학가 취업박람회 열풍 들여다 보기

최근 대학가에서 각 대학 주최 취업박람회가 활성화 되고 있다. 올해에만 40여 개의 대학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개강시즌에 맞춰 9월초에 고려대, 홍익대, 건국대 등은 이미 개최했고 서강대는 10월 11일과 12일에 열 예정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취업박람회는 따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해 지난주 월요일부터 5일간 '입사서류작성·면접 집중 특강 면접실습'과 입사서류·면접클리닉이 열렸다.

에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학교에서도 취업박람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반면에 취업박람회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홍보에 치중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나친 기대에 빠져 기업의 채용자격에 맞지 않음에도 와서 기업의 근무환경만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커리어 다음'의 대학취업팀 김태훈 과장은 "취업박람회와 캠퍼스 리쿠르팅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하며 "박람회보다는 리쿠르팅이 취업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채용 정보 다양 기업들의 홍보장으로 전략할 수도 있어 철저한 준비 필요

또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 HRDP(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취업캠프 △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 토크 등이 있고 캠퍼스 리쿠르팅을 주최한다. 현재까지 우리 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취업지원팀 변민우 과장은 넓은 실내 공간 부재와 인력 부족문제를 꼽는다. 다른 학교를 살펴보면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홍익대학교의 경우 취업진로지원센터 정승우 직원은 "이틀 동안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서 여러 대학들이 한다고 따라할 문제만은 아니다"며 "대학, 학교, 학생 3주체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취업박람회가 기업의 채용정보를 얻고자 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업박람회에만 의존해 취직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취업박람회의 본래 의미를 퇴색되게 할 뿐이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 학생들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취업박람회는 개최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꿈과 목표와 노력. 성공적인 취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몫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2006 대한민국 Job Festival' 현장을 찾아서

"취업의 문, 통과하고 싶어요!!"

수많은 구직자들 몰린 현장 속 취업경쟁 실감

정보통신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2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국내 최대규모로 열려 개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2006 대한민국 Job Festival'.

개최 첫 날에만 2만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개최 이틀남인 22일에도 잡 페스티벌이 열리는 코엑스 태평양 홀 앞에는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있었다. 사람들은 대학생부터 20~30대 구직자, 40~50대의 중년 성인들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박람회장으로 출입하기 위해 개인별로 제출해야 하는 등록카드들을 살펴보니 각각의 등록카드에는 경력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각 기업들의 채용부스에는 정장을 입은 구직자들이 가득 북볏다. 업체 관계자는 채용부스를 찾아온 구직자에게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요"라고 조언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구직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곳은 바로 면접체험관. 실제 입사 면접처럼 면접상황을 연출하고 면접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김용준 씨,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기

사 중 본인의 전공과 맞는 이공계 쪽 기사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보세요"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몇 초 동안 구직자의 침묵이 이어지고 긴장감이 흐른다. 안에서는 면접관과 구직자간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바깥에서는 다른 구직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 면접현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메모한다.

올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박람회를 찾은 이윤정(22) 씨는 이번 박람회를 방문한 계기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채용에 관해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현장 채용도 있다고 해서 준비하고 왔다"고 말했다. 올 겨울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김정훈(27) 씨도 "여태껏 50여개의 업체에 지원서를 냈지만 한국데도 되지 않아 이번엔 필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창업교육관과 세미나실에서는 각각 '창업 사업계획 분석'과 '취업특강'이 진행됐다. 세미나실에서는 취업전략대 이우근 대표가 세미나 실을 가득 채운 구직자들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와 주관적 생각을 면접관들에게 강하게 전달하라"고 강조한다.

이들간 열린 잡 페스티벌 기간 동안 240여개의 참여업체에서 총 2,700명을 채용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500여명이 채 되지 않는다. 취업을 기대하고 박람회장을 찾았던 구직자들에게 여전히 취업구멍은 좁기만 하다. 직장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구직자들의 모습이 박람회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확연히 드러나 우리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실감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기업채용 부스에 모인 구직자들



▲ 기업 인사관계자와 채용 상담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 면접상황 지켜보며 면접 연습

check! 취업 박람회 박람회 가기전에 체크하세요 의상부터 이력서까지

취업박람회가 채용정보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9~10월 기업 인사채용 시기가 다가오면서 취업박람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취업박람회는 오는 10월까지 취업전문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각 기업의 채용동향이나 자신이 가고 싶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아는 데는 취업박람회를 찾아가 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

법이다. 취업박람회에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Q.1) 취업박람회에 갈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취업박람회를 처음 가고자 하는 이들은 무엇을 준비해 가야할 지 막막하다. 기업의 채용동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직접 채용관계자와 이야기해 보고 채용을 대비하고자 박람회를 방문한다면 이력

서나 자기소개서, 자격증을 소지해서 가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기업의 채용관계자와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가면 '현장채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Q.2) 취업박람회에 갈 때는 꼭 정장을 입어야 하나? 취업박람회를 찾아가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정장을 입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장차림이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복장은 아니다. 직장을 구하는 많은 이들이 취업박람회에 정장을 입고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직장에 채용되는 '현장채용'과 '면접실습'이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의 채용관계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채용을 결정하거나 실제 모의면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채용을 대비한 많은 구직자들이 박람회에 정장을 입고 참여한다. Q.3) 취업박람회에서 준비한 면접체험관과 이력서클리닉 등은 현장에서 직접 참여가능하다? 취업전문기관에서 준비하는 취업박람회의 경우 각 기업들의 채용설명외에도 채용대면면접과 이력서쓰기지도 등 취업과 기업채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준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주최 측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주최 측에서 마련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강좌별 수석장학 신설 안내

2006-2학기 강좌별 수석장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시행처지**
가. 강좌별로 교. 강사의 장학생 선발(추천) 재량권을 부여함 나.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확대에 인한 학생 만족도 제고함 다. 재학생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강좌별 심화학습을 유도함
- 2. 장학명칭** : 강좌별 수석장학
- 3. 장학금액** : 1강좌당 10만원
- 4. 장학금 지급대상** : 매학기 강좌별(전공, 교양)로 수석한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PASS과목, 교육실습, 현장실습은 제외 함)
- 5. 장학금 수혜 자격기준**
가. 강좌별(전공, 교양) 수석자 1명 나. 1인당 3강좌까지 지급 가능함. (단, 4학년(8학기) 재학생은 제외함) 다.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함 라.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계좌로 별도 지급함
- 6. 추천방법 및 지급**
가. 강좌별 교강사 : 강좌별로 최우수 학생 1명을 선정하여 성적인력 시 대상자를 입력 처리함 나.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처리되어 지급함
- 7. 시행시기** : 2006학년도 제2학기 성적처리 시 선발 하여 2007-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됨

학 생 처

2007학년도 교육실습생 동의서 접수 안내

2007학년도 교육실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실습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1. 대상자** : 2007학년도 1학기 4학년(7학기이상)재학 예정인 사범대학생 및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2. 실습기간** : 1차 - 2007년 4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4주간
2차 - 2007년 5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4주간
- 3. 내용** : 가. 교육실습동의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9.27(수) ~ 10.27(금) 나. 관련서류내용 : 교육실습협조 공문 + 교육실습 동의서 (소정양식) 교부처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및 학교홈페이지 / 학사(공자사범) 제출처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 4. 동의서 제출 방법 및 이후 교육실습 절차 안내**
사범대학 행정지원실에서 관련 서류 교부 (교육실습협조 공문+교육실습 동의서) 모교나 교육실습 희망학교 방문, 연구부 교생담당선생님께 관련 서류 제출
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날인 받음
실습동의서를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제출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 2007.2.12(월)~2.23(금)
2007년 3월 중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OT) 실시
- 5. 유의사항**
가. 본교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접수시작 : 10월 20일 이후 선착 순 접수 (사범대생 : 해당 학과, 비사범대생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나. 교육실습 시 실습교과목은 주전공(제1전공) 표시과목으로 함. 다. 교육실습 학교 배정 후 실습학교 변경 불가

사 범 대 학

2007년도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4년제대학 졸업자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00명) 남학생
-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 (1979. 11. 1 ~ 1987. 10. 31일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9. 25 ~ 10. 24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지원서 1부	호적등본 / 주민등본 각 2부
고등학교 생활지도기록부 사본 1부	대학 수능성적증명서 원본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교 전학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컬러사진(반명함판 4x5cm, 탈모상반신) 3매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2007년도 학사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9. 25 ~ 10. 14
체 령 검 정	2006. 10. 25 ~ 11. 1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11. 2 ~ 11. 17
1차 합격자 발표	2006. 12. 22
신 원 조 회	2006. 12. 26 ~ 2007. 2. 23
최종합격자 발표	2007. 3. 8

- 대우 및 복지혜택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 장기지원시 국내 외 민간인 대학원 위탁교육 가능
○ 장교급여, 전역시 취업알선등 각종혜택 부여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2260-8537)

2007년도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192명 : 보병(13), 정보(31), 공병(8), 통신(20), 전산(13), 병기(18), 병참(11), 수송(10), 화학(9), 부관(10), 헌병(8), 경리(15), 정훈(9), 수의(2), 의정(15)
-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1979. 8. 1 ~ 1987. 7. 31출생자) 미혼여성, 4년제 대학 졸업(2007. 2월 졸업예정)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9. 11 ~ 10. 11
- 구비서류
- 선발 방법 / 일정

지원서 1부	호적등본 / 주민등본 각 2부	대학 교 전학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고등학교 생활지도기록부 사본 1부	대학 수능성적증명서 원본 1부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 교 전학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컬러사진(반명함판 4x5cm) 3매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가산점 증명서류	

- 대우 및 복지혜택

구 분	여 군 사 관
지원서 접수	2006. 9. 11 ~ 10. 11
1차 합격자 발표	2006. 11. 3
인상검사 / 신체검사	2006. 11. 6 ~ 11. 10
체력검정 / 면접평가	2006. 11. 13 ~ 11. 17
2차 합격자 발표	2006. 12. 1
신 원 조 회	2006. 12. 4 ~ 2007. 1. 19
최종합격자 발표	2007. 1. 26

- 생활 필수품을 공장도 가격 수준으로 구입
- 휴가, 출장, 기타 업무시에 군 휴양 복지시설(호텔 및 콘도) 이용가능
-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설악, 용인, 지리산, 양평등)
- 기혼자에게 군 아파트 제공
- 출산휴가, 정기휴가 실시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2260-8537)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써온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문장은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ac.kr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게시판실명제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학기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주장'이라는 게시판이 실명제로 바뀌었다. 이윤인 즉 욕설이나 비방, 상업적 게시물을 거르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은 요즘 '나의 주장'에 들어가 보았는가? 현재 그 게시판은 오로지 종교적 관매나 수업에 대한 질문이 간혹 있을 뿐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게시판의 이름과 취지에 맞는 '주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학생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되어서 그럴까? 학내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어서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학생들이 실명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주장하듯 실명제가 험뜯거나 욕설, 언어 폭력 수준의 인신공격을 사라지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해 버렸다. 제 이름을 걸고 이야기함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로 쾌적한 학교 만들기

개강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복학해서 오랜만에 학교를 다녀라니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다. 시험과 과제 이외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을 조금 늘어놓을까 한다.

그런 차량들 상당수가 정기 주차를 위한 태그가 붙어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물의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에 아쉬움을 느낀다. 불편함보다 편안함을 찾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보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를 찾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싶다

한 주가 얼추 마무리 되는 금요일 저녁이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책상에 앉는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만의 휴식인가!'라며 혼잣말로 되뇌어본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세 명의 아이들의 과외.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겨우 겨우 만드는 공부 시간. 이것이 대학생인 내가 살아가는 한 주의 모습이다.

그런 차량들 상당수가 정기 주차를 위한 태그가 붙어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물의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에 아쉬움을 느낀다. 불편함보다 편안함을 찾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보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딤스'를 통해 느낀 부모역할의 중요성

요즘 마스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사 중 하나가 주의를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걸린 아이들의 기사일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환경호르몬 때문인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모 자식 간에 대화의 부재라는 것이다. 바쁘단 핑계로, 혹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해 아이들은 자아를 찾지 못하고 위와 같은 현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 한다. 아래 '딤스'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보자.

나는 처음에 딤스라는 아이한테 문제점을 찾으려 했지만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딤스를 응원 하게 되었고 그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닮았다. 딤스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섬세할 수 있으며 자신을 억눌렀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살짝이나마 열어 놓았을까. A선생님을 통해 그 문을 활짝 열었으면 뎀 너무 기뻐요 딤스한테 다시 한 번 감탄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보리소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는 부처님의 고행상이 모셔져 있다. 간다라의 거의 마지막 시기인 6세기경 작품으로 알려져 온다. 실물크기의 좌상인데,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다. 부처님이 히말라야에서 6년간 고행을 했다는 것은 모든 초기 불전이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분은 주로 요가를 닦았을 것으로 보지만, 마지막에는 고행에만 몰두한다. 고행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단식. 그래서 초기불전에는 '새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고'라는 표현이 있다. 결국 그 분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러서야 이 고행을 중단한다.

고행상

따라서 고행상은 이 처절한 수련의 과정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움푹 파인 눈과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는 해골을 연상시킨다. 갈비뼈는 그대로 노출되었고 늘어뜨린 양팔의 실핏줄이 드러나고 있다. 전 체적으로는 음산하면서도 범접하기 힘든 위엄이 감돈다. 나는 유독 이 불상을 보고픈 마음에 이슬라마바드에서 긴 여정을 재촉한 적도 있다. 과묵한 탓에 나는 아직 우리나라에 고행상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불상은 한결같이 원만한 모습이다. 둥글고 기품 있는 그 푸근한 미소를 얻게 되기까지 처절한 자기희생과 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러

정병조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교수

학생논단



김지혜
문과대 국문4

한겨레21의 올해 테마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강요'이다. 처음 한겨레21의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 로크나 루소 등 사회계약 사상가들이 집필한 국가란 개념에 대해 의우고 또 의웠다. 국가란 개인이 약속강식의 세계에 살면서 혼자 살아가기 힘들기에 계약을 통해 탄생시킨 것이라고. 그렇다면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 국가에 대한 맹세?!

가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온다. 사회계약 사상가들의 말에 의하면 국가란 개인, 바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의무도 수행한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라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어렸을 적 읽은 케네디 전기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걱정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걱정하라.'는 말을 보고 어린 마음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 속에서 심어진 국가에 대한 강요된 충성에서 나온 존경이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외우기 시작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일주일에 한번은 꼬박꼬박 읊었고, 이러한 행동의 반복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받칠...' 나를 당연시 하게 되었다. 국가라는 것은 개개인의 집합체이다. 개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립시키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국가가 개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심

지어 목숨까지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한다. 물론 개인은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계약을 한 입장이기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신시대의 유폴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어야 한다. 결코 국가에 대한 진실한 충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맹세문'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에 대해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는 것이 곧 애국심이라고 강요하는 맹세문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어떤 이는 아니키즘을 들먹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난 국가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강요받던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독자 사진첩



실례는 지금, 이 시간 ...
나는 오늘 무대에서 다른 사람이 된다. 일상에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모습의 '나'.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은 항상 설렌다.
- 동아리 '극예술연구회'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기자들의 노력이 빛을 보도록 신문홍보에도 힘써야



지난호에는 동국인으로서 누구나 한번쯤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실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었다. 먼저 1면의 '우리학교 체육부 점검(上)'은 체육부의 열악한 환경을 알리면서 재학생들의 무관심을 꼬집어 주었다. 한 재학생의 말처럼 학교 측에서도 탄탄한 재정확

보와 관심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도면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원작 제목을 차용한 '동약로'가 눈에 띄었는데, 나도 지금까지 이 기사처럼 등록금으로 인해 학교시설에 대한 권리만 있다고 생각했던 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 왔었던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사로 지난날의 사소한 행동까지 되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회전무대'는 언제나 동대신문 특유의 풍자와 해학의 묘미가 담겨져 있어 항상 주의 깊게 보지만, '까치밥'과 같은 내용을 접하면 매번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생협 한가위 귀향버스 신청소식과 함께 귀향버스 노선표를

실었는데, 이는 명절날 부분 마음으로 고향 길을 향할 동대인들에게 여전히 동대신문이 알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번 동대신문을 접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렇듯 유의한 정보가 과연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의 여부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대신문이 언제 발간되며, 어디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른다. 한 주간 소식을 알차게 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대신문기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문 발간 후의 홍보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의견 및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좀 더 발전된 신문사의 모습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명은 (사과대 행정2)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향
월 (9/25)	설렁탕 (2000)	쇠고기청경채볶음 (2000)	민장찌개 (3200)	쇠고기미역국 (2000)
	함박스투 (2200)	새우볶음밥&김치소스 (2000)	육개장 (3500)	낙지비빔밥 (2900)
	꾸꾸미콩나물비빔밥 (2000)	족발 (2000)	자반구이 (3500)	돈육김치찌개 (2500)
화 (9/26)	섭신적구이 (2000)	닭곰탕 (2000)	민장찌개 (3200)	북어계란국 (2300)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제육볶음 (2000)	오징어들술밥 (3500)	수제돈가스정식 (2900)
	돈육고추장볶음 (2000)	신채비빔밥&생선가스 (2000)	떡갈비찜 (3800)	순두부찌개 (2500)
수 (9/27)	닭개장 (2000)	쇠고기국밥 (2000)	민장찌개 (3200)	건새우아욱국 (2000)
	순대야채볶음 (2000)	계란햄볶음&떡볶이 (2000)	설렁탕 (3500)	제육꾸꾸미떡볶이 (2900)
	간풍기 (2000)	오삼불고기 (2000)	닭갈비 (3500)	순만두국 (2500)
목 (9/28)	콩나물밥 (2000)	영양갈비탕 (2200)	민장찌개 (3200)	어묵매운탕 (2000)
	탕수육 (2000)	하이리이스 (2000)	돈동빠우거지탕 (3500)	알밥 (2900)
	해물경단백반 (2000)	닭도리탕 (2000)	해물찜 (3800)	닭곰탕 (2500)
금 (9/29)	순만두국 (2000)	비지리숙제비 (2000)	민장찌개 (3200)	사골콩나물해장국 (2000)
	쇠고기당면볶음 (2000)	치킨탕수 (2000)	불낙전골 (3500)	중국식볶음밥 (2900)
	청양탕고기떡볶이 (2000)	모듬볶음밥&풀무원찜 (2000)	황태구이 (3800)	김치탕 (2500)

흔들리는 상아탑, 인문학의 위기

실용학문 추구로 인문학 위축 ... 학교·학과차원 대안마련 시급

인문학 위기론은 늘 이야기될 정도로 뿌리가 깊지만, 최근 들어 부쩍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문과대 교수 121명은 '인문학의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인문학 선언'을 발표했다.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더불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위기는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늘어나는 전과와 강좌의 폐강, 낮은 대학원 진학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학생의 약 8.5% 정도가 전과를 한다. 선호도는 해마다 비슷한데, 독어독문·사학·철학·윤리문화학과나 불교학부의 경우 40~50% 이상이 전과하고 있다.

반대로 행정·신방·광고·경영학과 등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 대부분 취업에 유리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 곳이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영대, 사과대, 사범대의 경우 나가는 학생은 거의 없는 반면 원하는 학생들은 많다.

그런가하면 학생들이 신문방송학, 광고학, 경영학과 강좌는 앞 다투어 수강하지만, '언어학의 이해', '시와 예술적 상상력', '읽기와 비평' 등 이변화가 인문학 영역 교양교과목은 기준인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해 폐강되었다.

2002년 1학기부터 8학기 동안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인문계열 신입생 수와 지원자 통계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문=박사 1명(2명 지원), 석사 6명(8명 지원) △한문=박사 0명(0명 지원), 석사 11명(16명 지원) △중문=박사 1명(3명 지원), 석사 6명(12명 지원) △윤리문화=박사 3명(6명 지원), 석사 3명(6명 지원) △지리=박사 1명(5명 지원), 석사 3명(3명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윤길(불교학) 대학원장은 "자연과학을 인간의 육체라고 한다면 인문학은 정신에 비유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계획이 있어도 재원이 부족해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과대학은 각 학과별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리문화학과의 '기업윤리', '생명윤리', '윤리문화연구' 등과 같은 강좌는 학생들의 관심을 염두에 두고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꾀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이번 가을부터 일 년에 두 차례씩 지속적으로 500여개의 기업에 학과의 특성화된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자질을 담은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국어국문학과 김상일 교수는 "전공을 세분화 한 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과정처럼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여타 학문의 발전이나 인격이나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인문학은 중요한 사회적 토대이다. 봉일원(독어독문학) 문과대학장은 "엄밀한 의미로 인문학의 위기가 기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뿐"이라며 "인문학에도 실용적인 성격이 있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문학의 발전 없이는 다른 학문의 부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인문학은 단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특별기고 - 동국 100년의 회고담 (마지막회)

또다른 100년, '선두주자' 정신 계승을 다짐하다



정 종 철학과 명예교수

우리신문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정신의 역사와 의의를 되새겨보는 정종(1915~92세)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정종 명예교수는 아흔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기억력으로 동국의 '선두주자' 정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편집자

인류 최고의 이상적 인간상은 건전한 신체 속의 건전한 정신이다. 심신의 조화·영육일여(靈肉一如)·영육쌍전(靈肉雙全)·문무겸전(文武兼全)이다. '지식을 사랑하되, 문약에 빠지지 말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사치에 흐르지 말라'고 페리클레스 대왕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훈시했으니, 인류의 최고최대의 이상은 동대의 '선두주자정신'에 이르러 개화 결심된 쉐이다. 오늘날 지구촌의 어느 대학에서 이러한 구현체를 찾아 볼 수 있을까? 공자의 '사(史)와 야(野)의 조화' 또는 '문질彬彬(文質彬彬)'의 균자정신은 지구촌 어디에도 아닌 동대의 불상

앞에서 그 완성을 본 것이다.

동대의 정신은 시종일관, 그리고 음양간에 파사현정과 사자불신, 불퇴전의 보살도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한국의 불자로서의 지상명령이 엄존한 이상, 북한, 남한의 궁핍과 같은 난관 속의 불자들이 자비의 불심으로 보듬는 이 불사와 대역사를 연계까지 '나 몰라라' 외면할 수 있는 노릇인가? 화해와 화합과 자비와 포용의 불교정신을 언제까지 외면하고만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인도철학과 출신의 용기 있는 불자가 위에서와 같은 대불신의 구현을 위해 해설처럼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경불 영천사의 주지(선) 법타다.

불교와 맞닿은 선두주자정신

그는 불자로서의 초발심의 실천을 위해 도미, 이후 미국의 영주권으로 입국하기 12회에, 김일성과 두 번 악수하고 북한불교연구회 박사학위를 취득, 귀국한 한국불교계의 선두주자로서 독보적이다. 이리하여 그도 역사에 베레스트를 예위한 히말라야 8000m급 고봉의 하나다.

역시 인도철학과 출신의 박성배는 뉴욕대학에 뜻을 내리고 한국 불교의 세계화 운동에 있어 선구·독보적인 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다. 영문학 분야에는 셰익스피어의 김재남과 T.S.엘리어트의 이장배가 있었다.

해방 제1세대의 철학자 고형곤(1906~2004)은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 철학과 불교사상을 접목시킨 학위논문을 썼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의 한자경은 본토에서 칸트(Kant, 1724~1804)를 전공하고 동대 불교학과 대학원에서 성유식 문연구(우형근 지도)로 두 번째의 학위를 취득하니(1999), 이는 일본 학계에도 없는 일로서 앞으로 기대되는 바

가 자못 크다.

철학과에서는 한상원이 '한국철학'이라는 술어를 처음 쓰고 이를 과의 커리큘럼에 삽입, 심학중심으로 강의 하니 한국 철학계의 초유지사가 되었으며 해방 제2세대인 김용정은 서양철학 특히 칸트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현대 물리학을 도입한 바, 한국 최초의 영역을 개척하였으니 앞으로의 결실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보니 씁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빼버리면 화통점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처리하기로 한다.

동족상잔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고 나서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민족적 자아로의 회귀 풍조가 일기 시작했고 또 이를 보듬고 부채질하기 위한 암중모색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 나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철학적 명제의 실천궁행의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일찍이 누구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공자의 세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0여 년 만에 '공자사상의 인간학적 연구'라 제한 학위논문이 나오고 (1975) 이윽고 '한국공자학회'가 탄생하니(1980) 이는 한국 동양철학계의 가장 연차 높은 학회이다.

선두주자 전통 계승의 중요성

어떠한 작업이고 어느 단계이건 간에 차세대로 갈수록 웅성해지지 당대에서 끝나버려선 안 된다는 게 내생각이다. 나는 위에서 '한국최초'와 '선두주자' 의지를 강조했는데, 문제는 계승자가 더욱 중요하다. 화려한 인스턴트나 1회용은 무의미하다.

동대는 과연 빛나는 선재들과 자랑스러운 선두주자들의 전통을 잘 이어갔는지를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밤

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한 번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100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모교의 빛나는 건학 100주년 잔치를 도맡게 된 영광과 행운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나의 소원 하나를 덧붙이자면, 100년의 성스럽고 복된 이 날에, 고민 또 고민 끝에 일도 양단의 대결단을 내릴 용기는 없으신지, 홍기삼 총장에게 간청하고 싶다. 아주 기회가 그만이기 때문이다.

사회학과와 한 유위환 교수의 돌출 발언과 돌출행동이 먼 훗날이 되면 아니, 개교 200주년이 되는 날이 오면 우리 대동대의 선두주자 정신이자 파사현정의 불교정신으로 칭송될지도 모를 일이며 또 그것은 동시에 민주적 자아 탈환과 정립을 위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의 직간접의 표현이 될지도 모른다. 일찍이 법타의 영동한 행동도 많은 고초를 수반했지만 또 그만큼 역사의 뒤편도 빨라졌다고 할만도 하다.

자비와 관용의 불교정신

모교 탄생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더욱 의미있게 살려보자는 부처님의 넓고도 깊은 관용의 미덕으로 강경구 교수를 누워치고 돌아오는 땅아 맞이하듯 환대함으로써 이 흥겨운 잔치의 마당을 더욱 흥겹게 꾸며주시기를 바란다.

오늘의 역조창생들이 죄다 떠나고 난 뒤에, 분단이 해소되고 하나의 조국이 된지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더욱 찬란한 200주년이 찾아오면 그날의 우리 후배총장이 100년 전 홍총장의 용기 있는 은사령을 기념식사의 총장 식사에서 칭송함으로써 기립박수를 받을 것으로 굳게 또 굳게 나는 믿는다.

지금의 우리 모두도 불멸의 불심으로 찬가를 읊조리리라.

달하나 천강에

자원(自願)이 아니라 타원(他願)이어서야?



허남결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교수

십여 년 전부터 교육현장에서 '전인교육'이나 '현장체형교육', 또는 '사회봉사참여' 등과 같은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자원봉사활동'도 정규 이수과목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르고 몰라도 초·중·고등학생들은 수행평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지 않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대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각종 봉사활동 경력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의미에서든 봉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만 강요된(?) , 이데올로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든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소위된 노동, 다시 말해 타원(他願)봉사활동이 아닌가!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전공학점보다 봉사활동이나 일에 대한 열정 및 경험,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력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생기발달하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의 본질적 의미와 그것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되풀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며, 기업은 기업대로 지원자가 내민 봉사활동 이력서의 도덕적 동기가 진정성까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요즘을 대학 주변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풍경은 곧 이런 한국적인 상황이 빚어낸 타협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이란 말은 더 이상 신선하거나 순수하게 들리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상업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굳이 자원봉사활동이란 말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 보지 않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진 봉사활동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원(自願)이란 말 속에는 이미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어떤 도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불교윤리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시작하되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회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대판 보살행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자원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취업이라는 소위적 목적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꾸꾸어 나갈 미래의 동국인들에게서는 도덕적 스케일 측면에서도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야기 동국 100년史

동국대학교 시대의 도래

⑫ 종합대학 승격과 대학의 재건

정전협상이 시작되면서 피난지에서 운영되던 전시연립대학은 사실상 해체에 접어들어 학생들도 소속대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해체된 전시연립대학은 지방문화의 육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각 도의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16개에 달하는 사립대학이 새로 설립되거나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우리학교 역시 이 시기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다.



대학본부(현 학림관 자리)

종합대학으로의 승격 기준은 3개 단과대학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1951년 11월 25일 피난지인 경남교무원에서 사철립 일부를 농림학부 설치와 경영에 충당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952년 2월 1일 농림대학 충실과 대학원 신설을 골자로 한 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고, 1953년 2월 6일 정식으로 종합대학교 설립이 인가되었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불교학과·영문학과·정치학과 등 3개 대학원과 불교대학·문과대학·법정대학·농림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을 갖추게 되었다. 농학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와 서울농업초급대학(서울시립대 전신)의 원과도 정교였고, 사립대학으로는 우리학교가 처음이었다.

초대 총장에는 중앙불전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권상로 박사가 취임하였다. 종합대학 승격으로 교수진의 확보와 제반시설의 보완이 긴요했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컸다. 많은 교수와 강사들이 강제 납치되거나 화를 당하였기 때문에 교과를 편성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권상로 총장이 고령을 이유로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자 당시 (주)한국광산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백성욱 박사가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학교는 3년여의 임시교사 생활을 청산하고 1953년 8월 20일부터 서울 귀환을 시작하여 9월에 정상적으로 개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 교정은 인적이 끊긴 채 잡초만 우거져 있었고, 교내 도로와 축대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또 정문과 인쇄소가 위치해 있던 건물 2개 등은 폭격으로 소실된 상태였다. 결국 교직원들은 공터에 가건물을 짓고, 조명기 교수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필름 소재의 유치원 대지와 사찰 건물을 빌려 가까스로 강의실을 마련하였다. 또 피해를 입은 도서판도 서둘러 정리하고, 전반기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도서들을 구입하여 약 6만 8천여부의 도서를 구비하였다. 이렇듯 전쟁으로 황폐화된 대학의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은 1953년 11월에 이르러서였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상업화의 도마위에 오른 캠퍼스

대학내 상업시설 등장 ... 수익보다 학생복지 우선해야

학생들은 더 이상 캠퍼스에서 자판기 커피나 학생식당 음식만으로 먹을거리를 해결하지 않는다. 요즘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패스트푸드를 집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의 폭을 누린다.

고려대의 '타이거 플라자'는 애초 복지기관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층에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섰다. 예외가 있다면 학생들의 쉼터인 '고대마루' 뿐이다.

한양대는 주로 학생들의 자치기구, 동아리 시설로 사용되던 직녀관 1층에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커피 전문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내 상업 공간들을 한곳으로 모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섰다. 상업시설이 들어

서면서 직녀관은 '한양 플라자'로 이름을 바꿨다. 이러한 상업시설에 대해 김상환(한양대3) 군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업시설을 만들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이현주(고려대1) 학생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좋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 2004년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화관 별관에 '로즈버드'가 문을 열었다. 그 후 지난 3월 사범대와 공과대에서 해화관 로즈버드같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 요구에 부응해 원흥관과 분관 사이 주차장을 학생들의 쉼터로 바꾸면서 분관에도 로즈버드가 생겼다.

또한 올해 초에는 생활 직영으로 운영하던 상

록원의 스낵코너를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외부업체인 '이디야'에 맡겼다. 하지만 학생들의 호응이 컸던 로즈버드와는 달리 이디야는 현재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방학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고 개학 후에도 일부 메뉴는 주문을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로 생활 측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외부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은 학교재단의 발전 기금으로 쓰인다. 생활협동조합 김장례계장은 "로즈버드 등의 임대료는 학교시설 확충과 시설보수로 쓰인다"며 "아리수 내부공사도 이 기금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생활 측은 로즈버드와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 할 것이며, 이디야는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시 학교 측에서 인수를 하거나 새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외부업체가 경영하는 시설이 소규모 하나 상권으로 자리 잡은 타학교와의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학내 상업공간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미 대학가의 한 흐름이 됐다. 상업 공간은 학교 측의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학생들 또한 상업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업시설을 두고 단지 '상업의 상업화'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필요하다면 제공돼 학생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이익사업이 아니라 '학생복지'라는 본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고려대 '타이거 플라자'



▲ 해화관 '로즈버드'



▲ 한양대 '한양플라자'

문화예술인 그리고 동국

관객은 내 영혼의 친구



▲ 연극연출가 서민희(연극03졸) 동문

"관객들과의 솔직한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라!"

현장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연극의 매력에 빠져 연출가의 길을 선택한 서민희(연극03졸) 동문.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영광이네요"라며 인터뷰에 응한 그는 "겸손하고 멋진" 선배였다.

동문 4명이 모여 만든 'THEATER 情'이라는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 동문은 처음부터 연출을 꿈꾸지는 않았다.

한 때 연기를 공부하다가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말할 정도로 방황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같은 과 '손호원' 선배의 영향으로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그는 "선배의 인

생을 컨닝하고 있죠"라며 웃는다.

얼마 전 막을 내린 'LOVE, 죽여! 살려!'에서 무대 감독을 맡기도 한, 서 동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첫 작품인 '한 여름 밤의 꿈'을 꼽았다.

서 동문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때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스스로 몇몇하지 못했다"며 "관객들이 웃어주는 것조차 상처로 다가왔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노력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술인이었다.

서 동문은 "예술과 함께 하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피와 땀이 필요한 일"이라며 "일단 하고자 하면 그것을 믿고 버틸 수 있어야

THEATER 情 동문회

사생활용 필기책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필기책

한정판 100부 한정판

여기에 한 선배가 자신에게 해 준 말이라며 후배들에게 '10년을 버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오는 12월에 극단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창작극 공연을 앞두고 있고, 내년 4월에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란 작품을 맡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2년 후에는 연극에도 도전해 볼 것이라고.

최소 2-3개월의 준비 과정과 6-7주 연습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무대에 올라가는 연극 작품. 한편의 연극을 위해 쏟는 열정과 함께 더 큰 무대로 향하는 서 동문의 모습을 지켜보자!

류경화 기자
jinghe86@dongguk.edu

메아리

분노가 사무칠 때

▲조선시대 후기에 봉당정치 체제 안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학문이 '주자학'이다. 주자학은 그 학설과 다른 모든 학설사상을 이단으로 보아 극도로 배척했고, 이러한 학풍을 이어 받은 문신들은 고집불통의 성격과 반대파의 인신을 사납게 공격하는 술책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지배계급들은 좁은 국토 안에 살면서 벼슬자리만을 얻음으로써 부귀영달을 누리려고 하였다. 따라서 문신들은 다른 선비의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들추어 힐문하고, 출세의 길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조 3류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이 제대로 된 재판 모습을 갖추려면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며 "변호사의 서류는 남을 속이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틀에 걸쳐 '유감'을 표현했으며 대한 변호사 협회는 '대법원장 즉각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검찰과 변호사, 법원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 발언이 갈등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사, 법원 측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란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와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사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검찰, 변호사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난하는 것도 법정 안주도권 싸움에 밀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시대 주자학 세력은 부국강병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정치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번번이 이를 가로막았고, 군주의 권력을 제약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만 급급했고 결국 얼마 못가 주자학 세력은 몰락했다. 사법부가 감정싸움에 휘둘려 가장 중요한 국면을 위한 사법개혁과 논의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사법부는 무엇보다 사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은 언제가 될지 안타깝기만 하다.

강지혜 편집장
iamjh713@dongguk.edu

2006년 백상 대제전 'BIG 3' 개최 안내

- 제18회 백상 콘서트**
 - * 주최: 동국대학교 백상예술원
 - * 후원: 동국대학교
 - * 일시 및 장소: 9월 26일(화) 늦은 7시, 대운동장 특별무대
 - * 진행: 나몰라 패밀리(SBS '웃찾사' 팀)
 - * 출연: 백상예술원, 'A'CELL IN A STORY' 팀(초청밴드), 동대부고 밴드부 외
 - * 초대가수: 럽블피쉬
- 제22회 동아리 연합제전 T.H.E.**
 - * 주최: 동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 * 후원: 동국대학교
 - * 일시 및 장소: - 주간: 9월 27일(수) 12시, 팔정도 주변 (도서바자회, 각종 게임 및 사진전, 동아리 특별공연 등) - 야간: 9월 27일(수) 늦은 6시 30분, 대운동장 특별무대
 - * 진행: 박경림
 - * 출연: 손짓사랑회, 아리랑, O.D.C., 몽계구름, AJAX, 피어리스팀, SSID, MAXI(숙명여대 밴드동아리)
 - * 초대가수: 이승환
- 제2회 목격자요제(본선)**
 - * 주최: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DUBS)
 - * 후원: 동국대학교
 - * 일시 및 장소: 9월 28일(목) 늦은 6시, 대운동장 특별무대
 - * 진행: 이승기, 전혜빈
 - * 출연: 본선진출팀 13팀, 작년 대상수상자 및 직원대표 각 1팀
 - * 초대가수: 임정희, SG워너비

초대합니다

제9회 송편배우기 & 사랑나누기

송편 빚기를 익히며 익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정성껏 만든 송편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쁜 송편을 받은 학생에게는 시상의 기쁨까지.

함께 추석의 의미를 나누면서 보람있고 뜻깊은 추석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10:00 ~ 10:10	인사말 · 행사진행안내
10:10 ~ 10:30	추석의 의미 · 떡에 관한 설명 및 시연
10:30 ~ 15:30	유학생과 함께 송편빚기
15:30 ~ 16:00	예쁜 송편시상 · 송편전달

※ 시상내역: 으뜸상, 버금상, 이차상, 끈기상

일 시: 2006. 9.27(수) 10:00 ~ 16:00
장 소: 계산관 오피딩(시험대 옆)
주 최: 여학생실(☎ 2260-3058)
후 원: 참사랑봉사단

양성평등 써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봉사활동시간 인정)

여학생실에서는 대학 내 양성평등문화 양성에 앞장서는 '양성평등 써포터즈'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학내 다양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캠페인에 성문화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양성평등 써포터즈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활동기간: 2006년 2학기
△모집대상: 동국대 재학생 남, 여 (대학원생 제외)
△모집인원: 25명
△교육일시: 10월 12일(목), 13일(금) 중 선택 오후 4시 ~ 6시
△교육장소: 여학생실
△활동내용: ○ 성차별 및 성희롱 근절활동 모니터링 ○ 양성평등 워크샵 및 집단활동 도우미 ○ 성희롱예방 캠페인 진행보조 ○ 캠퍼스 안전환경 조성활동 도우미

△문의 및 신청: 여학생실 2260-3056, 3058

여 학생 실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가능 학생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가장 먼저 진로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대 상: 전학년(3~4학년 층수)
2. 접수안내: 2회~10회접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담당팀 신청은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담당팀 채인원/교내 3935)
3. 모집인원 및 장소: 외당 신청은 100명, 다양한 세미나실
4. 강의내용: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 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5.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시간: 17:00 ~ 19:00)

회	일	시	내	용	강	사	소	속
3회	10월10일	간식/중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용철	대우건설 기획부장				
4회	10월17일	영업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원규	LG생활과학 영업팀장				
5회	10월31일	마케팅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정훈	마케팅엔지니어 코리아 대표				
6회	11월7일	경영기획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준호	롯데카드인사팀장				
7회	11월14일	공기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신기정	한국전력공사인력충원팀 과장				
8회	11월21일	유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고병수	진로 인사팀 과장				
9회	11월28일	금융업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덕환	신한은행 서대문점 지점장				
10회	12월 5일	재무회계직의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김창수	한국수력원자력 자급팀 과장				

학 생 처 취 업 지 원 센 터